

추석연휴 '모세의 기적' 보러 갈까

진도·여수 사도 바다 갈리짐 현상

추석연휴에 진도와 여수 사도 등에서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바다 갈리짐' 현상이 나타난다.

바다 갈리짐 현상이란 달과 태양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사리기간에 조수간만의 차가 커져 발생하는 현상으로 주위보다 높은 해저 지형이 일시적으로 드러나 바다가 갈리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29일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진도군 모도 7일 오후 5시~5시 58분, 9일 오전 6시 1분~6시 51분 ▲여수 시도에서 7일 오후 2시 30분~4시 20분, 8일 오후 3시 15분~4시 54분에 바다 갈리짐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7~9일 경기도 화성시 제부도, 인천시 실미도, 인천시 소야도 해안 등 전국 곳곳에서 바다 갈리짐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바다 갈리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nori.go.kr)에서 발생 시각 외에 교통정보, 주변 관광명소, 체험 이벤트, 수변시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임호경 前화순군수 군청직원 고소

임호경 전 전남 화순군수는 29일 역시 화순군수를 지난 부인 이영남씨와 관련해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화순군 청 6급 공무원 A씨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화순경찰에 고소했다.

임 전 군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A씨 등 3명은 '임 전 군수가 처인 이 전 군수를 5·31 지방선거 당시 선거유세를 짚었다는 이유로 구타해 전대병원에 입원시켰으며 이 전 군수가 (10월 25일)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자 폭행한 후 일본으로 골프를 치러갔다"는 내용의 음ه성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군수는 "현재 자전거로 군수 후보로 거론되는 이 전 군수를 낙선 시킬 목적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선관위, 광주시교육감 입후보자 고발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10월 23일 실시되는 광주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회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모씨와 교육공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9일 시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모씨는 11~20일 3회에 걸쳐 교육공무원이 주선한 학교운영위원회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명함을 교부하고 인사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공무원과 공모해 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시교육청 직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은 학교운영위원회들에게 3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식사모임 때마다 입후보 예정자에게 전화해 운영위원회에게 인사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르포 / 국군의 날 맞은 흑산도 레이더부대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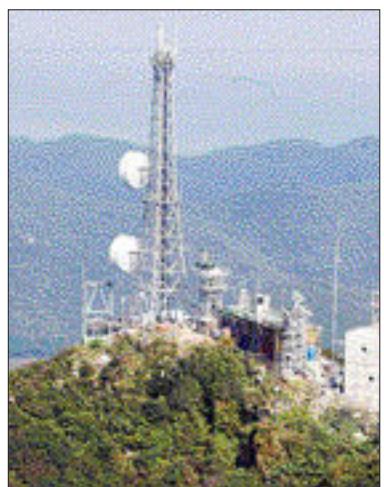
내일침 6940 김종득

'서남해를 지켜라' 对中경계 24시

'작전실패는 용납할 수 있지만, 경계실패는 용서 할 수 없다'

제58주년 국군의 날을 대비 앞둔 26일 오후, 목포항에서 해경 소속 러시아제 까마푸 헬기(KA-32T)를 타고, 남서쪽으로 기수를 들었다. 영토의 최남단 '이어도'가 한·중간 해양분쟁 지역으로 떠오르면서 서남단 해역에 대한 경계도 우리 해군의 당면 과제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40여분동안 100km를 비행한 끝에 도착한 곳은 흑산도 해군 레이더 기지



레이더가 설치돼 있는 흑산도 무남산 깃대봉(해발고도 404m)에 있는 '작전기지'의 모습.

'제273해상전탐감시대'였다. 중국 본토까지 직선 거리로 520km인 이곳 기지 분관 2층 작전상황실에 다급한 목소리가 울린다.

한·중 해양분쟁 신경전

"미식별 선박 출현"

레이더 병인 김현태(20) 일병이 스크린에서 콩알만한 점을 가리키며 당직사관인 엄태종(22) 하사를 바라본다. 임 하사는 곧바로 핫라인을 통해 목포해역방위사령부(목포해역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흑산 남방 미식별 선박: 레이더상 소형이고, 외해에서 내해로 이동중, 180도 18마일, 090도 20kts(노트)."

"미식별 선박 포착" 초긴장

엄 하사는 보고는 동시에 'KNTDS' (한국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 전산망을 통해 전 해군과 협력에 전달됐다.

다행히 10분 뒤, 물체가 모니터에서 사라지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엄 하사는 "미확인 선박의 가장 인근 해역에서 경계증인 경비정이 접근하자 우리나라 영해 밖으로 빠져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흑산도 문암산 깃대봉 해발 404m에 자리한 이 기지는 지난 1977년 생겨



'제273해상전탐감시대' 본관 2층 작전상황실에서 부대원들이 레이더 앞에 모여 바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올해로 창설 29년을 맞았다.

최대 반경 100km까지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가 설치돼 80여명의 해군 병사들이 하루 24시간 서·남해안 구역 구석을 살피며 철옹 경계를 펼치고 있다. 고장과 정전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레이더 2기를 설치했고, 부대 인근에 최대 200km 전력을 만들어내는 예비발전시설도 갖췄다.

고장 항로로 이동하지 않거나 영해를 침범하는 선박·항공기 등을 발견, 빠른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임무를 맡고 있어 단 1초라도 긴장을 풀 수 없다. 이 때문에 부대 곳곳에는 '줄

면 들어온다'는 문구가 붙어 병사들에게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반경 100km까지 관측

감시대장 양경연(39) 소령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를 마구 드나들고 조업을 하게 놔두면 나중에는 '자기네 땅'이라며 우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불법 조업을 하는 어선들을 적발하는 것은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는 중요한 작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전남경찰청 총경급 간부

추석 떡값 받아 직위해제

총경급 경찰간부가 명절을 앞두고 떡값 명복으로 수백만원의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감찰에서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9일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비위 사실이 적발된 전남경찰청 소속 A(51)총경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A 총경은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께 경찰청 주관 '수사경찰 인사 운영 규칙 개정안 순회교육'에 참석한 5명의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들로부터 1인당 30~50만원씩 모두 200여만원의 촌자리를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됐다.

감찰반은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경찰청에 통보했고, 경찰청은 A총경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거액의 현금 소지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전남청은 또 A총경에게 금품을 준 일선 경찰서 간부급 경찰관 5명도 대기발령 조치 했다.

이에 대해 A총경은 "어제 본청 주관의 일선서 수사과장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게 된 일부 직원들이 인사차례를 했는데 곧바로 돌려주려고 했다"며 "면전에서 돌려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며 오늘 오전에 모두 되돌려 줬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산성기도 목사 산삼 먹던 백사 잡아



○...산상 기도를 위해 턱새 산을 등산하던 목사가 산삼을 먹고 있는 백사(白蛇)를 잡아 화제다. 김종득

○...강원도 청선군 미자립 교회 Y(56) 목사는 지난 25일 오후 1시께 턱새 산 중턱에서 기도 장소를 찾고 있던 땅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길이 1m 가량의 흰 밸을 발견, 등산용 지팡이로 끄집어 내보니, 산삼을 물고 있었다고.

○...Y목사는 현재 향아리에 뱀을 보관하고 있으며 구매자가 생길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품상납 근절" 교사가 3보 1배

광주시교육청 앞서

광주 금호초등학교 박상철(33) 교사가 29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금품상납 관행 근절 구호를 외치며 3보 1배를 시작해 1km 가량 시교육청 주변을 돌았다.

박 교사는 이날 오후 4시 시교육청 앞에서 금품상납 관행 근절 구호를 외치며 3보 1배를 시작해 1km 가량 시교육청 주변을 돌았다.

박 교사는 최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초등교육계 금품상납과 수수 관행 척결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명절과 승수의 날, 출산휴가 전후 교장·교감에게 금품을 주는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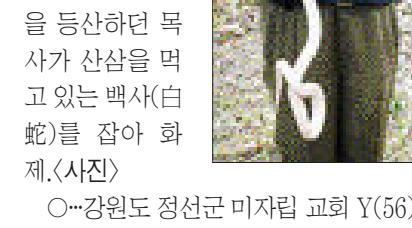
박 교사는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 정한 금품수수 인정범위와 기준"을 벗어난 위법행위를 후배 교사들에게 권하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한 뒤 금품수수 척결

을 위한 3단계 해결책으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행동강령 연수 실시(1단계), '금품상납을 하지말라'는 교장·교감의 의사 표시(2단계), 추석 전날 학교현장에 단속반 투입(3단계) 등을 제안했다.

한편 박 교사의 3보 1배 모습을 본 시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며 관심을 표명했고 시교육청 공무원들은 "광주 교육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과태료 체납차량 공매 경찰청 다음달부터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고통안전담당관실 관계자는 "과태료가 장기·중복 체납된 차량들이 많아 압류 절차를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키로 했다"며 "경찰서별로 대상을 선정하되 고급 차종, 중복 압류 건수가 많은 차량, 공공기관 및 대기업 차량 등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원도 청선군 미자립 교회 Y(56) 목사는 지난 25일 오후 1시께 턱새 산 중턱에서 기도 장소를 찾고 있던 땅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길이 1m 가량의 흰 밸을 발견, 등산용 지팡이로 끄집어 내보니, 산삼을 물고 있었다고.

○...Y목사는 현재 향아리에 뱀을 보관하고 있으며 구매자가 생길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